



다시 만나  
반기워

벚꽃이 만개한 4월 본관의 모습이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8일부터 4일간, 금지된 본관놀이를 대체하기 위해 '경희 BLOSSOM'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8면>

배지현 기자 fleitjsdp@khu.ac.kr

## 소통, 강좌 축소…후마 둘러싼 논쟁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지난 5일, 서울캠퍼스(서울캠) 청운관 704호에서 우리신문 주관으로 후마구조대의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문제, '우리가 사는 세계(우사세)' 폐지 및 '우사세 폐지 반대 위원회(위원회)' 해산, 교양 강좌 개수 축소, 협의 없이 진행된 대학영어 인원 증가가 주요 안건이었다.

서울캠 후마 이영준 학장, 김민철 '세계와 시민' PD 교수, 고봉준 중학교 PD 교수, 고인환 글쓰기 PD 교수가 후마 측 패널로, 박리리(사회학 2016) 대장, 배호연(사회학 2017) 대원, 백하연(사회학 2017) 대원, 김보경(사회학 2016) 대원이 후마구조대 측 패널로 참석했다. 안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학생, 교수, 교직원 약 30명이 참관인으로 토론회에 함께했다.

후마구조대는 먼저 개편 과정에 강좌 수강 대상자인 학생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

다.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은 "개 편안을 이미 완성시켜 놓은 뒤 학생을 참여시켜 할 수 있는 일을 없 게 만들었다"며 "과정상에서 모두 와 협의하고 실질적인 소통을 해야했다"고 말했다. 이영준 학장은 "학교는 소통에 있어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충분 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재도약 TF가 5월에 발족했고 활동을 시작해서 대학주보 보도를 통해 홍보를 했지만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면 학장으로서 미안하고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학장은 "모든 구성원의 협의를 받아내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학생의 대표인 총학생회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통례"라고 말했다. 이에 박리리 대장은 "당시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에서 양 캠퍼스 한 명씩 참여했는데 과연 학생 두 명이 교직원, 교수와 수평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지가 의문이다"고 말했다. 고인환 교수는 "앞으로 강좌에 대한 제

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이야기를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 해달라"며 "머리를 맞대고 같 이 이야기 해 나가고 싶다"고 설명 했다.

위원회 해산에 대해 이 학장은 사과와 함께 설명을 덧붙였다. 이 학장은 "학장의 거친 언행으로 자존심 상했을 교수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책임자의 입장에

서 날짜는 훌려가는 토론만 하 고 있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참관인으로 참석한 위원회 소속 박상용 교수는 "우사세가 없어지 기 때문이 아니라 과목이 없어지는 중대한 문제로 단 한 번도 토론 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항의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 학장은 "절차상 갈등은 인정하지만 기만이라는 나쁜 의도가 아닌, 좋은 교육하려는 순수한 의도에서 발생한 일이나 의도 자체를 의심하시는 말씀달라"고 답했다.

박리리 대장은 후마구조대 측 자료를 통해 2015년부터 축소된 교양 강좌 개수와 시간 강사 해고를 근거로 교양 강좌 축소를 비판했 다. 고봉준 교수는 "강좌 수가 적어

진 것이 아니라 강좌 리스트를 정리한 것이다"며 "강사를 자른 계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고 교수는 "후마 구조대가 언론 인터뷰에서 강좌가 절반 가량 사라졌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보경 대원은 "학교에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강의 리스트를 체크하면서 체감한 정보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 했다.

후마 구조대는 마지막으로 "후 마나름대로 학교를 발전시키려는 것엔 공감하지만 줄어든 강좌에 대한 학습권, 교육권 부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보이며 참관한 교수와 토론회에 참석한 교수의 의견이 엇갈리니 당연히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후마는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배포하는 것을 중단하고 긴밀하게 학교와 논의했으면 한다"며 "후마는 언제나 열려있으니 왜곡 없는 주장을 펼쳤으면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5면>

이다. 비학위과정 수입이나 국고지원 등 등록금 외 수입 확충이 주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선정된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받을 연간 71.7억 원 규모 국고지원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조정처는 "수강료, 기부금, 산학협력단전입금, 대여사업료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지속적인 예산 수립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우리학교의 2018년 교비회계 수입은 대학알리미 기준 약 5,237억 원이다. 이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에 이은 사립대학 5위 수준으로, 2016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순위다. 등록금 상한제 이후 사립대학 재정규모 성장률은 평균 1.5%에 그쳤지만 우리학교는 2.3%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금 수입이다. 등록금 수입은 약 2,898억 원으로 총 교비회계 수입의 약 55%를 차지한다. 하지만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타 대와 격차가 벌어졌다.

우리학교의 등록금 수입은 비슷한 재정 규모를 가진 5개 대학 중 4위다. 재학생 수는 19,579명으로 가장 많음을 고려하면 등록금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올해 전입 및 기부금 수입은 작년 대비 96.5억 원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전입금, 산학협력단전입금 등 23.9억 원이 감소하고 일반기부금 등 기부금수입은 45.4억 원 감소 한다.

악화되고 있는 수입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개교 70주년 기부금은 아직 발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조정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겠다는 입장



## 대평의 2차 입장문 '법인 제시한 규정 초안 구성원 약속 회피한 것'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대학평의원회(대평의)가 지난 9일 2차 입장문을 통해 총장후보추천규정(규정) 초안에 대한 구성원 의견 수렴 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평의는 법인이 제시한 규정 초안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법인과 대학 본부에 전달했다.

대평의 길재호 의장직무대행은 "지난 9일까지 규정 초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종합하여 법인과 대학 본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었다"고 했지만 "규정 초안에 비민주적인 독소 조항이 지나치게 많이 삽입되어 있어 수정 요구안을 만들기 조차 어려웠다"고 밝혔다.

대평의는 입장문을 통해 "법인이 제시한 규정 초안은 구성원과의 약속을 회피하고 내부 논란과 분열을 조장하여 선거를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동기에서 제출된 것일 뿐 아니라, 반민주적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 이 안은 법인이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상식도 갖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매우 부끄러운 문서다"라고 밝혔다.

또 "법인이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여 구성원들과의 진솔한 소통에 임하는 것만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또 다시 우리의 권고를 무시하고 편법과 지역전술로 사태를 호도하려 한 다음 즉각 전 구성원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학본부는 대평의 측이 밝힌 입장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장실 김동준 과장은 "총장직무 대행이 현재 해외에 있는 관계로 추후 입장문을 검토할 예정"이라 고 말했다.

한편, 대평의가 "현 대평의 체제에서 새 비상 소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기준 '총장 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에 속했던 일부 구성원 단체가 "총장 선출제 논의에 누락되는 구성원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열린 제2차 대평의에선 앞서 문과대학·외국어대학 교수들이 발표한 '범대위가 비상대책위 원회로 전환되어 투쟁을 다시 전개 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 내용에 따

라 '범대위 재구성 여부'가 논의됐다. 하지만 당시 회의에서는 범대위 보단 대평의 안에서 법인을 상대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당시 대평의 길재호 의장직무대 행은 회의 결과를 두고 "대평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공식 구성원 대표 기구라는 데서, 범대위가 아니라 대평의 범주에서 새로운 비상 소위원회가 꾸려질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암 도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여 위원 구성 등을 비롯한 새 비상 소위원회 관련 사항은 15일 열릴 제3차 대평의에서 모두 의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평의가 새 비상 소위원회 구성

움직임을 보이자 범대위에 참여했던 일부 구성원 단체는 "범대위는 아직 건재하며, 이를 무시하는 의사 결정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 지부 손기경 지부장은 "지난해 법인과의 총장 선출제 논의에서 범대위라는 형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것 이 맞다"며 "논의에 참여했던 모든 구성원 단체가 법인과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범대위는 아직 해체되지 않았으며 당시 소속됐던 구성원 단체 대표들과 어떻게 범대위를 재구성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 법인에도 법인소위원회와 같은 조직 구

성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라고도 덧붙였다.

범대위는 법인과의 총장 선출제 교섭을 위해 지난해 11월 7일 구성된 조직으로, 당시 '대평의에 소속되지 않은 구성원을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대학 본부 측 요청에 따라 구성됐다. 총동문회, 교수의회,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경희학원 통합노동조합,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 지부, 양 캠퍼스 학부 총학생회,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됐다. 범대위는 법인과 교섭을 통해 총장 선출제 단일안을 확정하고, 지난해 11월 22일 이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 시선

### 사설

#### 본래 목적 잊지 말라

대학평의원회(대평의)가 총장 선출제 교섭을 위해 대평의 내부에서 새 비상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소식에 총장 선출제가 구성원 갈등 국면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장후보추천규정(규정) 초안과 관리위원회 구성 등 대학본부, 법인과 구성원 간 논의도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가운데, 구성원 간 갈등이 새로 불거져 총장 선출제의 전망은 한층 어두워질 전망이다.

현 총장 선출제는 지난해 지난한 논의 과정을 거쳐, 의료원까지 포함한 학내 구성원 대표 단체 대부분이 참가한 ‘총장선출 범경희대학위원회(범대위)’와 법인이 내놓은 결과다. 새 학기 들어 법인이 내놓은 규정 초안을 두고 문과대학·외국어대학 교수들은 범대위를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 투쟁을 다시 전개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대평의에서 대평의가 공식 구성원 대표기구라는 점을 들어 ‘대평의 내부에서 새로운 비상 소위원회를 꾸릴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범대위에 참여했지만 대평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일부 구성원 단체는 대평의의 이러한 결정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대평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구성원 대표기구이고, 시작부터 총장 선출제 논의를 이끌어 왔다. 엄연히 정당한 대표성을 가지는 기구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대평의를 구성하는 교수의회, 직원 노동조합, 총학생회 등 구성원 단체 대표자가 선거를 통해 새로이 선출되었으니 조직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범대위의 존재도 무시할 순 없다. 비록 대학 본부의 중재를 계기로 구성이 진행됐고, 총장 선출제 논의를 위한 임시기구라고는 해도 모든 구성원 단체가 참여했다는 거고적 의의를 지닌다. 모든 구성원 대표가 참여해 하나님의 총장 선출제 합의안을 이끌어 낸 주역임을 부정할 수 없다.

총장 선출에 걸릴 시일을 고려하면 오는 5월 개교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총장을 뽑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은 힘들다. 구성원 갈등으로 일 이 더 지연된다면 규정 초안에서 지적된 독소 조항처럼, 법인의 의도대로 구성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안이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모든 노력과 의지가 허사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대평의와 범대위 모두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총장 선출제를 두고 긴긴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이유는 민주적인 총장 선출을 위해서다. 이미 지난 해 총장 선출제에 어떤 단체가 참여하느냐를 두고 내홍을 겪었고, 이를 다시 반복하는 우를 범할 필요는 없다.

대평의가 되었던 범대위가 되었던 궁극적으로 우리 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상기하기 바란다. 구성원이 의견을 모아 법인과 대화해야 한다. 그리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새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 대평의가 새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어느 단체까지 포용할 것인지, 만약 포함하지 않는다면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마땅히 대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범대위는 대평의가 가진 고유의 권한과 권위를 존중하며 의견 조율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자칫 구성원 간 갈등이라는 옆길에 빠져 처음 논의를 시작할 때 삼았던 목표를 잊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 이 주의 주제 - LINC+ 사업

## LINC+ 사업, 마지막 ‘섬세함’을 위해

안수민 기자

ansu95123@khu.ac.kr



처음부터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름도 생소했던 사업이었다. ‘LINC+ 사업(사회맞춤형 산학 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 학내에 처음 등장했던 것이 2017년이었다. 학교를 스쳐갔던 수많은 국고 지원 사업처럼 그저 또다시 흘러가고 말 것이라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다.

성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와 달았다. LINC+ 사업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지난 1학년도에는 사업기간 동안 6개 지역특화산업 중점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산학협력 모델이 구축됐다. 주변에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오픈랩에는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했다.

사업 이전인 2016년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떠올린다면, 우리학교는 이러한 취업률, 현장실습 등의 지표가 대학 위상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후 LINC+ 사업의 지표 달성을 기반으로 이듬해 같은 대학평가에서 6위를 달성할 수 있었고, 유지취업률은 2017년 24위에서 2018년 9위로 올라섰다. 변화는 단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LINC+ 사업만으로 학교가 발전을 이뤘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뚜렷한 지향점을 심어준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게 된 셈이다.

그리고 이제, ‘2단계 통과’라는 새 국면을 맞았다. 사업 3년차 ‘완숙’으로 가는 길목에서는, 곳곳마다 다시 한번 숨을 고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현장은 조금씩 쌓여온 문제들의 적증이었다. 일례로 이번 단계의 핵심 성과지표에서는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구건수와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비가 각각 47.8%, 86.1%로 다른 지표에 비해 상당히 낮은 달성을 보였다. 이는 연구자들이 학내 추진 중인 산학협력 연구과제 수행보다 논문 작성은 선호하여 발생한 일종의 ‘관행’이었다.

융합전공의 실효성 문제도 여전히 주목해야 할 문제다. LINC+ 사업의 대표적인 성과인 융합전공은 많은 참여자들이 1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준비한 사업이었지만, 정작 행정 처리의 복잡함과 흥보 방식 미흡 등이 완성을 가로막았다. 이밖에 클러스터로 대표되는 중장기 사업은 이미 그 기간적 특이성 때문에 이리저리 표류하는 모양새다.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힘이 실리지 않으면 무게중심을 잃을 가능성까지 엿보이고 있었다. 앞서 쌓아온 성과에 비추었을 때, 결국 모든 문제들이 일부의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섬세함’을 완성할 차례다. 앞서 누려본 효과만으로도,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질 이유는 충분하다. 그리고 그 관심이 온전히 전 지표를 유지시켰을 때, 효과는 우리학교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출발선에 선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구성원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을 때다.

한 후 성북구와 항일독립지사 선양단체, 고려대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는 작년 8월 도로명 ‘인촌로’ 직권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고려대로’로 도로명 변경을 결정했다. 성북구청은 “고려대로”라는 도로명이 우리 사회 친일청산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강대 경제학부 학생회는 지난달 16일 계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흡연구역 폐지를 공고했다.(GN관 흡연구역, 결국 폐지/서강학보, 2019.4.1.) 지난해 11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결정이다. 경제학부 학생회는 “GN관 유동인구가 많은 편에 많은 학우가 담배연기와 냄새로 고통을 호소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경제학부 학생회는 새 흡연구역의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중앙대 양 캠퍼스 강의실에 400대 가량의 공기청정기 설치가 진행된다.(공기청정기로 담당한 강의실 숨통 트다/중대신문, 2019.4.8.) 공기청정기는 운진코웨이가 기증한다. 대학본부는 “추가 필요한 수량은 정식 절차를 걸쳐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청정기 설치는 클린캠퍼스 캠퍼스의 일환으로, 차별 없는 캠퍼스 문화 조성과 안전, 비폭력·비음주 등을 지향하는 캠페인이다.

한국외대 서울캠에 남학생 휴게실이 마련됐다.(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남학생 휴게실 마련/외대학보, 2019.3.27.) 남학생 휴게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되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총학생회는 “남학생, 여학생 휴게실 모두 쾌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비품을 더 확보해 나가겠다”고 학생 복지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화여대 기숙사 E-House(이하우스) 301동 지하식당에서 누수 사고가 재발했다.(이하우스 水난시대… 잦은 누수 사고에 학생들 물상/이대학보, 2019.4.1.) 원공 후 지난 3년간 이하우스 누수 사고는 수차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처는 누수의 주원인으로 ‘온수 및 배관 연결부의 탈락’을 꼽았다. 이화여대 측은 시공사인 대림건설에 전수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관리처 안전팀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같은 사고가 발생할 시 대림건설 측에서 서비스 기간과 관계없이 조치를 하기로 사후 계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잊어야 한다는 건

#### 세시봉

김지원 (기자)



지난 2014년 새까만 바다가 세월호를 삼켰다. 국가적 비극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은 참사였다. 속보와 오보가 취재 열기 속에 뒤섞였다. 마침내는 ‘국가적 트라우마’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국가적 트라우마는 취재 열기와 함께 이내 자취를 감췄고 지금 우리는 세월호 5주기를 맞는다.

5년이라는 시간에도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바로 유가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다. 참사 당시 뉴스에 비친 유가족은 슬픔을 넘어 비통한 모습이었다. 그 때문일까, 우리에게 유가족은 언제나 ‘슬픈 사람’의 프레임으로 다가왔다.

슬픔이 무뎌지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오직 슬픔 속에서만 살기엔 지독히 긴 시간이었다. 그래서 유가족은 눈물 대신 슬픔을 표현할 방법을 찾았다. 노란 리본을 나눠주고 서명을 받고, 연극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출근하고 등교하고, 와지지껄 웃기도 하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유가족을 그냥 슬픈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시각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의 감정과 노력을 허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 ‘슬픔’이라는 프레임을 경계해야 할 때

몇 해 전 친구들과 함께 세월호가 인양된 목포 신항에 방문했다. 한 남자가 유난히 반갑게 우리를 맞았다. 현장을 관리하는 공무원이겠거니 생각했다. 그가 환하게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그는 “안녕하세요, 누구 아빠입니다”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예상치 못한 소개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는 “괜찮아요, 많이들 놀라세요”라며 또 웃어보였다. 내게 내재되어 있던 프레임이 빛어낸 결과였다.

지금도 세월호 기사 밑에서는 유가족들의 태도를 놓고 댓글 공방이 심심찮게 펼쳐진다. 유가족의 분노에는 “보상금 더 받으려고 쇼하는 거 아니냐”며, 웃음에는 “웃음이 나오나”며 잔인한 말을 서슴지 않는다. 유가족에게 멋대로 씌운 프레임이 불러온 결과다. 댓글 작성자에게 유가족은 그저 슬퍼해야 하는 사람기기에 다른 감정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웃는게 두렵다”던 유가족의 말은 결코 엄살이 아닌 현실이다.

프레임에 씌인 우리는 은연중에 참사 후 남겨진 사람 모습을 상정하고 그 모습을 기대하며 유가족에게 프레임을 씌운다. 우리가 씌운 프레임은 유가족들의 하나님뿐인 표정, 슬픔이 되어 다른 감정을 얹어한다.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할 이유다.

웃음을 만병통치약이라고 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악발이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유가족에게 웃음은 치료제보다는 진통제와 같은 게 아닐까 싶다. 몇 년 전 목포 신항에서 만난 그의 웃음을 순수히 바라보지 못한 죄책감으로, 그들에게 온전히 진통제를 돌려주고자 하는 책임감으로 펜을 들었다. 감히 새겨본다. 잊지 않겠노라 약속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고, 잊어야 마땅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고.

### 알림

#### 대학주보에

####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쪽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박영국 | 편집인 조영웅 | 편집장 이우승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자인(주)  
구독료 1년 만원 | 구독 02-3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인터넷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nu.ac.kr/kunews | 이메일 knunews@kn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덕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 대학은 지금

#### 대학가는 봄맞이 캠퍼스 정리정돈 중

김지원 기자 kjw990327@knu.ac.kr

서울대 자산운영과 건물명 일원화 작업에 들어갔다.(등본 상 건물명 갱신된다/대학신문, 2019.3.31.) 그간 구성원이 부르는 통칭과 건축물대장 등본 상 이름이 이상한 경우가 많아 내비게이션으로 찾기 곤란하거나 배송이 잘못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등본 상 건물명은 처음 등록된 이후 건물 용도나 명칭이 바뀌어도 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서울대는 조사를 통해 등본 상 이름을 통칭으로 바꿀 예정이다.

‘인촌로’가 ‘고려대로’로 바뀌었다.(‘인촌로’가 아닌 ‘고려대로’, 3월 28일부터 적용/고대신문, 2019.3.31.) 지난 2017년 대법원이 인촌 김성수의 친일 행위를 인정

# 오락가락 이과대 인력, 학생만 피해

김수혁 기자 sherk@knu.ac.kr

【서울】 본부의 행정직원인력조정안이 시행되자 이과대에서 인력 공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성토가 계속되고 있다. 본부는 유예기간 1년을 두고 이과대 행정인력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이과대 학생회가 이과대 신임 행정실장 발령을 두고 ‘행정인력 감축 책임자를 행정실장으로 발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4일 부총장실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행정직원인력조정은 행정 거버넌스 개편의 일환이다. 부서별 정규직:계약직 비율을 정규직 3명당 비정규직 1명으로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총장실 이용성 실장은 “행정 거버넌스 개편에 따라 자연히 인력구조 조정도 필요해졌다”면서 “노동조합(노조)의 요구와 정부 시책 등을 반영해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을 잡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고려해 3:1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과대는 당초 정규직 3명과 계약직 9명, 총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대학본부가 정한 3:1 조정안에 따르면 계약직을 3명으로 축소하고 2명의 정규직을 충원해 8명으로 조정해야 했다. 이과대 학장과 부

총장은 논의를 거쳐 정규직 5명과 계약직 4명, 총 9명의 인력을 두기로 합의했다. 이과대는 개강에 앞서 계약이 만료된 계약직 직원 5명분의 신규발령을 내지 않았으나 개강 이후 본부가 약속한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공백이 발생했다. 인사발령을 위해서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행정 거버넌스 시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노조와 협상 문제로 신규 인사발령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이과대 전임 행정실장이 정년퇴임하면서 이과대 행정실은 지난해에 비해 반으로 줄어든 직원 6명으로 개강을 맞았다. 인력 부족으로 6개 학과 사무실은 폐쇄됐고 이과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과별 실험실 지원 등 모든 업무가 단과대 행정실 한 곳으로 집중됐다. 혼란이 가중되자 본부는 1년간 행정인력 원상복구를 약속해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3월 29일, 본부가 4월 8일자로 신임 이과대 행정실장에 정진봉 전 인사처장을 발령하자 또 다른 반발이 일어났다. 이과대 학생회는 ‘정진봉 신임 행정실장이 이번 행정 인력 감축과 행정실 통합으로 인해 벌어진 혼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4월 1일 이과대 학생회는 정진봉 실장과 부총장실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4월 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정 실장은 이과대 학생회에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아는 바가 없으며, 인사발령 후 자세히 이야기 하자’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과대 학생회는 ‘무책임한 답변’이라며 4일, 본관 앞 시위와 부총장실 항의방문을 감행했다(아래사진).

항의방문 후 면담에서 이호창 서울부총장은 “정 전 처장은 이미 만들어진 개편안을 집행했을 뿐이다”라면서 “정 전 처장이 인력감축의 책임자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부총장은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인력조정은 결정된 사안인 만큼 유예기간 동안 행정실장과 적극 협력해 이과대 자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안을 만드는데 힘을 쏟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이과대 학생회 최인성(생물학 2016) 회장은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인력감축에 책임이 없었다는 부총장의 해명에 개운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으로서는 학교로부터 더 이상의 인력감축을 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과대는 늦으면 다가오는 22일까지 인력 충원을 완료하고 과사무실 복구 등 업무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SAMSUNG

실제 눈 앞에 있는 듯 살아 있는 자연색

TV를 넘어서 새로운 비전이 되다

QLED 8K QLED 8K

QLED 8K의 놀라운 화질을 기꺼운 예장 또는 삼성디스플레이 경험하세요.

## THE 대학 영향력 평가 ‘국내 1위’

박소영 기자 notold@knu.ac.kr

우리학교가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 ‘타임스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 THE)’이 발표한 ‘2019 THE 대학 영향력 평가(The University Impact Rankings)’ 종합 순위에서 세계 27위, 국내 1위에 올랐다.

종합 순위는 필수 반영 항목(▲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3개 항목을 합산해 도출됐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세계 1위, 국내 1위) ▲평화·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세계 26위, 국내 1위) ▲지속 가능한 산업화·혁신과 재생 가능한 인프라(세계 8위, 국내 4위) 항목 등이 가산돼 75개국 551개 대학 중 종합 27위에 오르며 국내 1위를 기록했다.

## 취업 정보 필요할 땐 ‘경희랜드’로

김재윤 기자 kji0808@knu.ac.kr

【국제】 우리학교 학생들이 만든 취업 정보 커뮤니티 ‘경희랜드(www.khland.kr)’가 지난 3일 문을 열었다. 온라인 웹 사이트가 기반인 경희랜드는 국제캠퍼스에 소속된 각 단과대, 미래인재센터, 국제교류처 등에서 제공하는 취업 관련 채용 공고문, 전공 연수, 취업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경희랜드는 학생회관의 개방형 연구 공간인 오픈랩에서 활동하는 윤미리(기계공학 2014), 김민석(우주과학 2017), 최정원(기계공학 2010), 황희원(기계공학 2018) 씨가 의기투합해 개발했다. 윤 씨

는 “직접 취업 준비를 해보니 정보를 찾기가 번거롭고 한정적임을 깨달아 제작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쌍방향 소통은 경희랜드의 큰 장점이다. 학교의 공식 정보들을 취합하는 한편, 학생들이 직접 취업 정보와 취업 관련 후기, 교육 행사 후기 등도 작성할 수 있다. 커뮤니티에서 만난 가입자들끼리 지속적인 교류도 가능하다.

윤 씨는 “우리 학교 취준생, 재학생 모두가 좋은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며 “자신이 속한 과나 동아리가 아니면 사람들과 교류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 경희랜드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종복 교수, 독일 훈볼트상 수상

문하령 기자 moonbym@knu.ac.kr

우리학교 김종복(영어영문학) 교수가 국내 인문학자로는 최초로 ‘독일 훈볼트 연구상(Humboldt Research Award)’을 수상했다.

훈볼트 연구상은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분야에서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업적을 남긴 학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독일 자연과학계의 선구자 학자 알렉산더 폰 훈볼트(Alexander von Humboldt)를 기념해 제정됐다. 이 상은 독일 내 우수한 연구자들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과정으로 유명하다.

김 교수는 영어 및 한국어 언어 현상과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진행한 것과 아울러 ‘A&HCI’를 비롯한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다수 게재하는 등 국내 인문학 연구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김 교수는 “이상을 수상할 만큼 충분히 연구 업적을 이루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아직은 학자로써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세상에 관한 많은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 무대라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처한 학생들이 있다면 큰 꿈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 (주)크로스구조연구소기술사사무소 (주)네오크로스구조엔지니어링

건축구조기술사  
공학박사 김점한 (건축80)  
대표이사

T.02-529-2835 F.02-2057-2834

www.crossarc.co.kr

## ARA (주)건축사사무소 아라그룹

대표이사/건축사  
도시공학박사 왕정한 (건축82)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길 26 (문정동 H비지니스파크 C동 413호)  
Tel.(02)549-6693 Fax.(02)549-6697  
www.aragroup.co.kr

## 후마-후마구조대 공개토론회

김수혁 기자 sherk@knu.ac.kr  
 이서림 기자 silee1001@knu.ac.kr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nu.ac.kr

#. 지난 5일, 우리신문은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와 후마구조대를 초청해 후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문제, '우리가 사는 세계(우사세)' 폐지 및 '우사세 폐지 반대 위원회(위원회)' 해산, 교양 강좌 개수 축소, 협의 없이 진행된 대학영어 인원 증가가 주요 안건이었다. 서울캠퍸스(서울캠) 후마 이영준 학장, 김민철 세계와 시민 PD 교수, 고봉준 중핵교과 PD 교수, 고인환 글쓰기 PD 교수가 후마 측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 참가자 외에도 약 30여 명의 학생, 교수, 직원 등이 참석했다. 진행된 토론 내용은 가독성을 고려해 편집했다.

### 도입발언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첫 번째 안건으로, 학교는 '대학영어 인원 증가는 과목 전체적인 증감이다'라고 주장하지만 후마구조대는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대학영어 교수들은 이를 전혀 몰랐으며, 과목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조정이다. 둘째, 학교는 '개편과 시간강사 해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후마에 강사가 많이 포진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무책임한 발언이다.셋째, 교양강의 축소다. 학교 측이 재정문제 때문에 강의를 수백여 개 감축했는데 강의의 축소와 재정 문제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들을 강의가 없고 수강신청이 어려워지고 있다. 끝으로, 여섯 가지 요구를 한다. 교양강의 개수를 회복시킬 것, 우사세를 회복시키거나 그렇지 못하겠다면 동등한 양과 질의 대체 강좌를 마련할 것, 시간강사를 재고용 할 것, 더 이상 대학영어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 거짓으로 후마구조대를 비난한 것에 대해 공식 대자보와 정정 메일을 통해 해명할 것, 후마 재도약 3.0 과정에서 학생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후마 이영준 학장** : 후마 출범 당시 모두가 놀랐다. 대학이 취업 학원으로 전락한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었다. 인문학을 중심에 둔 후마는 경희대학교의 상징이 됐다. 작년부터 준비한 재도약 프로그램을 통해 필수교과 정원은 25명으로 줄었다. 어느 대학도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해냈다. 젊은 세대가 어떤 미래를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려한 결정으로, 새로운 교과도 만들었다. 후마는 도약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에 따른 고통도 있었다. 소규모 강의의 위해서는 중핵 교과 두 과목 중 하나인 우사세를 필수교과에서 선택과목으로 바꿔야 했다. 그렇지만 후마는 강의와 강사를 줄이지 않았다. 후마는 출범 당시 일반 강사의 2배에서 3배의 강의료를 지불하는 60여 명의 객원교수로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간 절반 이상이 비정년전임교수로 전환됐다. 타대보다 등록금이 백만 원 이상 낮은데도 불구하고 고비용의 교양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후마구조대 학생들의 주장에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학교의 교육적 비전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선한 의지를 펼하하지 말아 달라. 힘을 합쳐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자.

### ▶안건1. 개편과정의 소통문제 : 소통 적절하게 이뤄졌나?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학생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일부 교수들만 개편 내용을 알고 있었다. 총학생회(총학)과

# 후마니타스칼리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논의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11월 말 개편 설명회 자료를 보면 조인원 당시 총장과 함께 TF에서 6개월에 걸쳐 개편안을 만들었고 몇 개월 지난 다음 교수자들이, 또 몇 개월 지난 다음에야 캠퍼스 당 한 명씩 두 명의 학생이 TF에 참여했다. 참석 학생에 따르면 이미 개편안은 거의 만들어져 있었고 학생들에게는 YES, NO만 물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순서가 잘못됐다. 개편 과정에서 미리 다 함께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논의했어야 했다. 학교는 소통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잘 몰랐고 그렇다면 학교에 소통 부족의 책임이 있다.

**후마 이영준 학장** : 재도약 TF 빌족은 지난해 5월이다. 6월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8월 경에는 총학도 이미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수용했다. 9월 초에는 대학주보를 통해 기사가 나가기도 했다. 에브리타임이나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의 당시 기록을 보면 이미 학생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교육 과정 개편은 일반적으로 텁다운 방식이다. 정부의 교육과정 개편도 그렇듯이 모든 사안에 대해 일일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물어서 일을 진행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 물론 그러다보면 소통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후마가 처음 출범한 이후 재개정 작업이 꾸준히 이뤄졌다. 현재도 교과목에 대해 학생 의견을 끊임없이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 ▶세계와 시민 교과 신설, 성급했나?

**후마구조대 김보경 대원** : 개편에 대해 학생들이 잘 몰랐던 것은 개편이 너무 급하게 이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간의 가치 탐색(인가탐)'이나 '시민교육(시교)', '우리가 사는 세계(우사세)'를 만들 때는 몇 년간 투자하고 논의했다고 알고 있다. '세계와 시민(세시)'은 6개월 만에 만들었다는데,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서 나왔다라는 기획이 왜 그렇게 급하게 진행돼야 했는지 의문이다. '비뱅에서 문명까지(빅문)'가 새로 나왔을 때도 학생 불만이 많았다. 급하게 만들 어져 체계도 제대로 안 잡혀 있고 수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

**후마 고봉준 중핵교과PD 교수** :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준비했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급하게 준비했다고 반드시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지난 겨울방학 세시 워크샵에서 후마구조대 학생들이 '두 달 만에 해서 교재 만들 수 있겠나'고 했는데 만들지 않았나. 인가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처음 나왔을 때는 교재가 너무 두껍다거나 비싸다는 등 반응이 냉랭했다. 하지만 이후 학생 의견을 수렴해 200페이지 가량을 줄여내고 안착했다. 세시를 왜 만들었냐고 할 수는 있지만 급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은 문제이다.

### ▶안건2. 우사세 폐지반대위원회 해산 문제 : 강의배정 지원으로 비대위 해산에 압력 넣었나?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우사세 폐지반대위원회(위원회) 해산 문제도 불통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개편 설명회 당시 교수자 반발이 나오자 TF의 우기동 교수가 간담회를 열자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간담회를 열겠다고 하자 학교 측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학생과 교수자의 반발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 참석해서 해명해야 했다. 오히려 공청회 직전 강의배정 메일을 보냈다고 들었다. 행정 절차라고 하지만 위원회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처사다.

**후마 고봉준 중핵교과PD 교수** :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신청, 희망과목답기를 위해 강의배정은 빨리 이뤄져야 한다. 강의배정과 위원회가 연결됐는데 세시를 맡을 건지 맡지 않을 건지 물어야 했다. 위원회가 세시 신



“

교육 과정 개편은 일반적으로 텁다운 방식이다. 물론 그러다보면 소통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재개정으로 교과목에 대해 끊임없이 학생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

후마 이영준 학장



“

언론 인터뷰에서 절반 가량의 강의가 사라졌다고 말했는데 그로 인해서 학교内外에서 큰 오해와 논란이 벌어졌다. 이 책임은 누가 지나? 후마는 그렇게 강의를 줄인 적이 없다.

”

고봉준 중핵교과 PD 교수



“

교양교육이라는 후마의 대원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방법이 필연적으로 특정 과목이어야만 한다는 법은 없다.

”

김민철 세계와 시민 PD 교수



“

강사법과 시간강사 처우에 관해 우려하는데 전임 회의에서도 어떻게 하면 강사 한 분의 피해라도 더 덜까 고민한다. 대립만을 부각시키기 보다 어떻게 함께 잘 해낼까 고민하면 좋겠다.

”

고인환 글쓰기 PD 교수

설에 반대하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박상용(참관인, 전 우사세 비대위원장) 교수** : 그렇다면 세시를 제외하고 강의를 배정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왜 인가탐 등 다른 과목 먼저 배정하지 않았나.

**후마 고봉준 중핵교과PD 교수** : 전체 시수 가운데 일부만 따로 배정하는 전례가 없다. 강의배정을 할 때는 캠퍼스와 요일, 시간 등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강의의 배정이 끝나야 시스템에 탑재가 된다.

**후마 이영준 학장** : 개편 과정 책임자로서, 교원들과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다. 위원회 등이 개편안을 반대하는데 날짜는 자꾸 지나서 다소 밀어붙인 측면을 인정한다. 하지만 책임자 입장에서는 무작정 토론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정 반대한다면 배정할 건 먼저 하겠다'고 한 것이다.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했다.

### ▶우사세 폐지에 내부 논의 부족했나?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우사세가 폐지될 수는 있지만 왜 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됐다는 것이 문제다. 교수자, 학생 의견도 충분히 묻지 않고 일부 교수자들이 독단적으로 폐지 결정했다.

**김종인(참관인, 후마) 교수** : 개편이 텁다운으로 시작했다고 끝도 같다른 법은 없다. 텁다운으로 시작했더라도 이후 당사자들과 토론이 필요했다. 중핵교과에서 우사세가 폐지된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다. 미리 토론 했다면 개편 발표 뒤에 이런 식의 반대가 튀어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 …다섯가지 쟁점 놓고 두시간 반 열띤 토론

“

개편의 순서가 잘못됐다. 먼저 미리 다 함께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논의 해어야 했다. 학교는 소통을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잘 몰랐고 그렇다면 학교에 소통 부족의 책임이 있다.

”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개편에 대해 학생들이 잘 몰랐던 것은 개편이 너무 급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서 ‘세계와 시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급해야 했는지 의문이다.

”

후마구조대 김보경 대원



“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기 전에 지난 과오를 씻고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개편과정을 되짚어 보고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

후마구조대 백하연 대원



“

개편과정 상에 사과할 일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뒤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하는 것이 맞는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

후마구조대 배호연 대원



**후마 고봉준 중핵교과PD 교수 :** PD 교수 가 된 이후 중핵교수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교과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모이자고 했을 때 단체로 거부했고, 지난 학기 교재 개편을 위해 의견 달라고 했을 때 한 분만 응답했다. 이 자리에서 말할 순 없지만 작년, 재작년 중핵교과 내부 인사 문제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중핵교과는 얼굴을 맞대고 내부토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 ▶안건3. 교양 강의 개수 감축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2015년 11월 18일 후마 학장과 교육운영위원회 간담회에 따르면, 강의 감축 및 강사 해고가 일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에 사실무근이라고 말

씀하시니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려 달라.

**후마 고봉준 중핵교과PD 교수 :** 강의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강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후마는 개설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개설할, 이전에 개설한 강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 중의 일부를 몇 년마다 삭제한다. 2015년에는 교양학부 시절 교과목과 후마가 출범하며 만든 교과목 등을 정리했다. 126 개의 강의를 정리하는 대신 82개의 새로운 교과목을 만들었다. 따라서 개설 강의 수와 강사 해고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후마 이영준 학장 :** 2011년 후마 출범 시 학생회의 요구에 따라 개설 과목을 유지하며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들을 2013년에서 2014년에 정리한 것이지 시간강사 해고와는 무관하다. 2010년에서 2019년까지 강의 리스트를 보면 일시적인 증감을 제외하고는 큰 틀

에서 변화가 없다. 오히려 2015년에서 2016년 리스트를 보면 교과목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매학기 수강신청 대란으로 배분을 못 들었던 학생들을 위해 늘리고 있다.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목록을 줄였을 뿐 아니라 실제 과목도 많이 폐지됐다. 2013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강의 130개가 줄었다. 인문학, 사회과학 등 비판적 정신이 담긴 과목이 줄고, 전임 교수의 강의가 늘었다. 게다가 2015년 연찬회의에서 발표된 대학 행·재정 발전계획안에 재정 악화를 대비하기 위해 400개의 강의를 축소하라는 개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들을 강의가 부족하고, 수강신청이 어렵다. 수업의 양과 질을 늘려 달라.

**후마 고봉준 중핵교과PD 교수 :** 강의가 가장 많았던 때를 기준으로 지금 강의가 줄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수강 신청 대란이

생기는 이유는 특정 교과목이나 교수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선착순에 따른 경쟁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다. 교수자가 엄청난 개수의 강의를 하지 않는 이상 수요를 못 맞춘다.

**후마구조대 김보경 대원 :** 학생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다. 말씀과는 달리 체감으로는 매우 수강신청이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이 의제가 없었던 이유는 경희사이버대학 학점교류를 통한 사이버 강의가 많았기 때문이다. 후마 교과목이 부족해서 사이버 강의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옳다고 볼 수 없다.

**후마 김민철 세시PD 교수 :** 체감 상 수강 신청 대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이버 강의는 전체 강좌의 2%밖에 안 된다. 과연 이 때문에 대란이 줄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료를 해석할 때는 주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겠지만, 온라인이 유지되려면 교육의 질이 확보돼야 한다. 그래서 조교들이 이 옆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안명진(참관인, 사회학 2015) :** 사이버 강의는 수가 적어도 몇 백 명이 수강한다. 숫자로만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학생들이 느끼는 정규강의는 배분과 자유이수다. 후마 교육자협의회(교협)에서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실제 배분과 자유이수에서 100여 개의 강의가 사라졌다. 소규모 수업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의도는 좋으나, 배분과 자유이수에서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수업이 줄어들고 한 수업에 학생 수가 많아진다.

**유정완(참관인, 후마 전 학장) 교수 :** 강의의 수를 비교할 때는 2010년과 2014년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2011년 1월에 교양학부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들이 후마 과목을 신청했기 때문에 수강신청 대란이 일어났다. 신규 과목 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탓에 기존 강사들에게 분반 요구를 했다. 두 학기 동안 200여 개의 강좌가 늘어났고 예년과 달리 1.5배 이상의 강의가 증가했다. 그리고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강의가 줄어든 것이다.

**안명진(참관인, 사회학 2015) :**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에 후마 교협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63개 강의가 또 줄어든다. 교양다운 교양이 감소하는 것은 분명하다.

**후마 고봉준 중핵교과PD 교수 :**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한 부분에서 강의가 늘어나면 배분이나 자유가 줄어들 수 있다. 듣고 싶은 강의가 있고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된다. 그렇지만 후마는 전체 강의를 줄이지 않았다. 돈 문제 때문에 강의를 줄였다는 비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32명의 강사를 더 채용했겠는가? 돈을 아끼기 위함이 절대 아니다.

## ▶안건4. 시간강사 해고 및 대학영어

**후마 고봉준 중핵교과PD 교수 :** 후마구조대가 주장한 ‘강의 400개 축소, 시간강사 67명 일방적 해고 통보’는 사실과 다르다. 연속 학기 초과에 따라 한 학기를 쉬어야 하는 경우, 강의평가 80점 미만인 경우, 교육과정 폐지 및 개설 강좌 조정, 개인 사정 때문에 강의를 맡기지 않은 것이다. 이를 해고로 볼 수는 없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6학년도 1학기부터 강단에 서지 못한 사람은 몇 없다.

**신혜영(참관인, 후마) 시간강사 :** 시간강사, 객원교수, 전임교수로 올라갈수록 의무 강의 시수가 늘어난다. 이 경우 강사 몇 명을 잘라낼 수 있는데 과연 재정문제와 관련이 없는가? 후마 출범 시에는 시간 강사 고용불안을 못 느꼈는데 어느 순간 연속학기 초과, 강의 평가 내용이 계약서에 추가됐다. 후마 강의 수가 변동됐던 시점과 교과 개편, 강사 해고 의혹과 시점이 맞물린다. 교과 개편과

강사 해고가 과연 무관한가? 궁극적으로 후마가 자신에 팔렸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있는가?

**후마 고봉준 중핵교과PD 교수 :** 많은 대학들이 2005년도 이후 강사를 줄이는 대신 계약직, 강의 전담, 비정년전임 교수를 썼다. 강사가 엄청난 수의 강의를 하지 않는 한 전임, 계약직, 강사 순으로 임금이 많다. 강사가 맡은 여러 과목을 줄이면 전임교수의 월급과 맞먹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그렇지만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수의 강의 비율, 충원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대학이 이를 선택했다. 돈 문제가 아니다. 또한, 고려대나 연세대는 강사법 대비 회의를 했다. 우리는 회의를 한 적이 없다.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어떤 의혹이든 근거가 있어야 한다.

**유정완(참관인, 후마 전 학장) 교수 :** 교양 교육 강화와 교수자의 지위 안정을 위해 공채를 통하지 않고 전임교원으로 전환한 경우는 없다.

**후마 김민철 세시PD 교수 :** 학교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과연 정확한 진단인가? 원래는 4학기 강의하면 한 학기를 쉬어야 한다. 그렇지만 후마는 8학기로 늘렸다. 한 학기 쉬는 것을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온정주의적인 생각은 잘못됐다. 시간강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다. 연속학기 초과에 따라 한 학기를 쉬는 것은 사실상 해고다. 시간강사의 인권과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달라. 대학영어를 인터넷 강의로 전환하면 돈이 줄어든다. 3년 간 사이버 강의로 진행되면 시간강사 임금을 줄 필요가 없지 않나? 대형 강의나 출업학점 축소도 마찬가지다. 고려대에서 발생한 일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의혹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하고 싶다.

**후마 고인환 글쓰기PD 교수 :** 왜 중핵교과 시간강사만 신분 안정이 보장돼야 하는가? 후마가 지금까지 중핵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

**신혜영(참관인, 후마) 시간강사 :** 왜곡이다. 대도하지 말라. 시간강사의 신분 안정을 중핵 중심주의라고 말씀하시는 게 문제다.

## 마무리 발언

**후마 이영준 학장 :** 후마구조대가 사실과 먼 주장을 해서 학생들을 오도하고 언론은 잘못된 정보를 재생산한다.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인 정보 배포를 즉각 취소하고 학교와 긴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 후마는 여러분에게 열려있다.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오라. 학생들의 근본적인 의도는 좋았다고 알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 대화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경희대학교가 가는 길을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모두 후마를 발전시키려고 힘쓰시는 것 알고 있다. 소통 부족을 인정하셨듯이 사안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학내구성원과 소통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 참관인 교수 사이에서도 증언이 엇갈리기 때문에 의혹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숫자 이야기만 하고 실질적인 학습권, 교육권에 대해 얘기하지 못해 아쉽다.



## 보도

# LINC+ 2단계 최종 진입…사업 완성도 확보 ‘관건’

안수민 기자 ansu95123@k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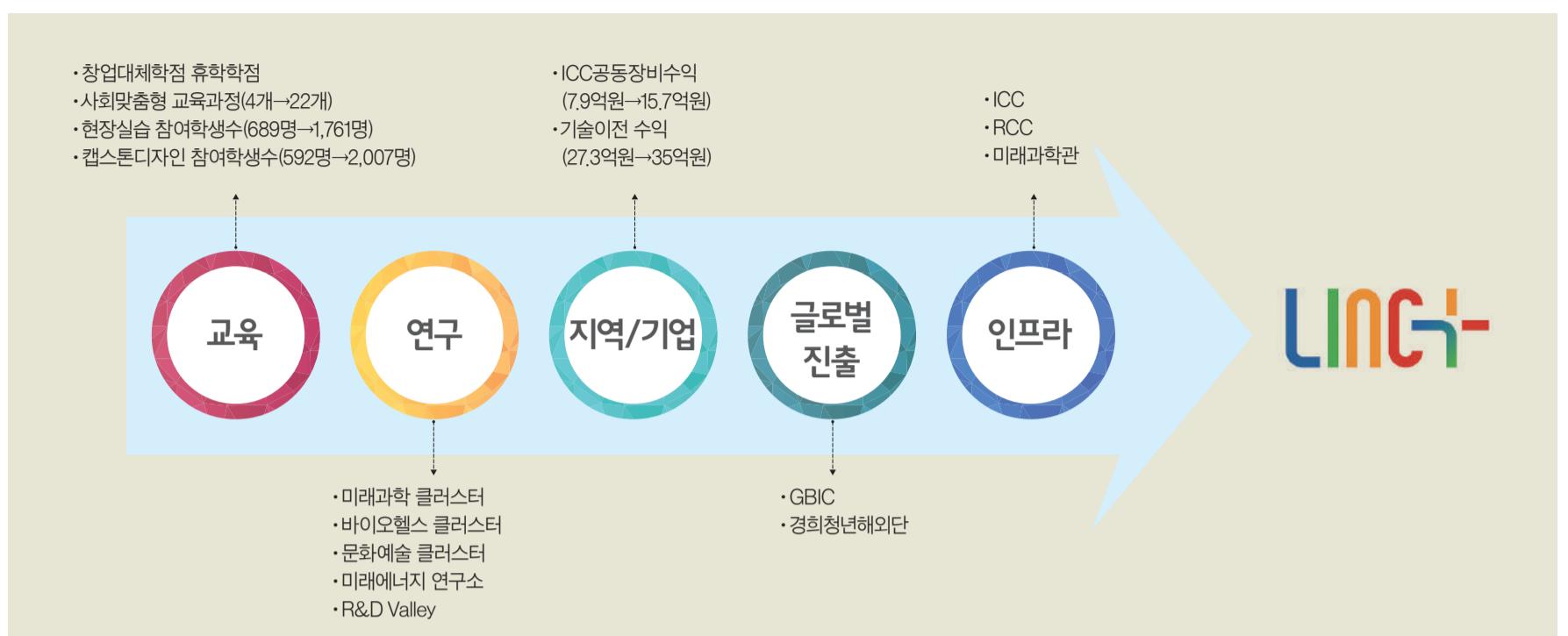
우리학교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2단계 진입이 지난 10일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가 이날 공시한 최종 선정 학교는 모두 75곳으로, 우리학교는 대형사업 지원으로 분류되는 산학협력 고도화형의 수도권 11개교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지원기간은 오는 2021년까지며 지원 규모만 연간 약 4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3년차에 접어든 사업의 효용성을 두고 긍정과 부정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발표된 우선선발 대상 학교에 우리학교가 포함되는 데는 현장실습 관련 항목 비중이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내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은 당초 사업 목표치의 230%를 보이며 예상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교육 현장에서의 캡스톤디자인 및 현장실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69개의 과제가 기업과 연계되었으며 1,3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현장실습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현장실습과 캡스톤디자인 참여 비율은 각각 34.5%, 21.1%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질적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캡스톤디자인을 수강한 엄세웅(국제학 2014)씨는 “자유주제로 진행되기에 가벼운 주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반반하다”며 “매 학기 발생하는 일부 학생들의 이런 행위를 현재로서는 막을 수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현장실습에 참여했던 A 학생은 “사전에 공지받은 계획서와는 전혀 다른 일만 하다가 왔다”며 “실습생이 긴 하지만 일한 만큼에 대한 적절한 보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LINC+로 인한 가장 큰 교육 분야의 변화는 융합전공과 새로운 교육과정이기도 하다. 이번 학기부터 글로벌문화기술 전공, 4D아트, 스마트팜공학전공 4개의 융합전공이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전공 품평이 새롭게 등장했다. 현재 학부 과정에는 22개의 사회맞춤형 교육과정과, 9개의 융합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 부담과 학생 수요 등의 문제로 일부 학과가 개설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지역연계와 기업혁신 측면에서는 6개의 지역특화사업 중점지원센터(ICC)와 2개의 지역사회혁신 중점지원센터(RCC)를 두고 있다. 우리학교와 교육 및 연구협력을 맺은 ‘가족회사’는 지난해 1,211개에서 올



“

향후 2단계 주요 계획으로는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형 산학협력 플랫폼(Aladdin)이  
구축될 예정이다.

”

해 1,350개로 증가했다. LINC+ 이영주 사무국장은 “현장실습 보내는 기관에 가족회사에 가도록 유도를 하고, 중소기업청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지속적으로 가족회사를 홍보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주)MJ보이스(해외기술 마케팅 및 기술 중계), (주)제피로스(공기환기 청정기)라는 2개의 자회사가 추가로 설립돼 학교는 총 7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게 됐다. 기술지주회사 주재모 본부장은 “아직까지는 자회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우리학교의 특허나 기술력을 기반으로 자회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연구 분야에서는 3대 연계 협력 클러스터(미래과학, 바이오헬스, 문화예술)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국제캠퍼스 부지에 R&D Valley, 충남 금산에 Eco Park, 홍릉 지역에 Bio Valley가 조성될 예정이다. 해당 분야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중장기 사업인 만큼 담보를 지속하는 상태다.

사업을 이끄는 BluePlanet21 준비위원회는 “기존에는 인류문명, 사회체육까지 포함한 5개 연계 협력클러스터로 시작했지만 LINC+ 사업에서는 이를 축소하여 3개 사업만 준비 중이다”며 “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이 아닌 추진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공식기구화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캠퍼스 전략기획팀은 “구체적으로 미래과학 클러스터는 공과대학이,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는 의과학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며 “반면 문화예술 클러스터는 예술·디자인대학 쪽에서 가시적으로 진전된 부분은 없고, 계획만 있는 상태다”고 밝혔다. 이에 이영주 사무국장은 “학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며 “큰 프로젝트는 가시적으로 급히 성과를 내기엔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도 개편됐다. 교원업적평가 시 산학협력 실적 반영항목이 기존 5개에서 16개로 증가됐고, 승진·재임용 시 산학협력 실적 대체인정비율도 100%로 변경됐다. 하지만 교수 일인당 산학협력 전수와 기여도는 여전히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범석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연구는 연구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논문을 통해 실적을 쌓는 상황이다”며 “국가발전적인 측면에서 산학협력연구가 중요하다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향후 2단계 주요 계획으로는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형 산학협력 플랫폼(Aladdin)이 구축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학생·교원·기업 등의 수요자별 데이터 분석과 각자의 취·창업 지식을 고려한 지능형 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처는 “올해 6월부터 본격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며 “학사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info21 2

단계 사업과 연계돼 함께 오픈된다”고 전했다. 또한 KH-ESI(지역사회공헌지수모델)과 KEMS(지역사회공헌지수관리시스템)을 마련한 뒤 Aladdin에 텁재하여 상시 활용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LINC+ 사업단 측은 “컨설팅을 받은 결과 Aladdin에 큰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이나 운영에 대해 권고를 받았다”며 “Aladdin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6월에 시스템이 오픈될 때 점검 후 수정이 필요하다면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산학 다리를 형성한다는 취지의 시도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비즈니스혁신센터(GBIC)가 설립돼 글로벌 창업지원,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경희 청년 해외개척단도 기획되어 해외 시장 개척에 관심 있는 학생 팀과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간 1:1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캠퍼스 산학협력관의 새로운 명칭인 미래과학관은 올해 인·허가 절차를 거쳐 중반기 착공될 예정이다. 연구공간 부족 해소,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대학의 핵심 가치 실현이 주 목적이다. 미래과학 클러스터, 지역거점연구센터(RIC), 미래환경연구소, 천체투영관, 공동기기원 등이 입주하게 된다.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막바지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4월 셋째 주 (4. 15.~4. 18.)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채용행사, 기업체 리크루팅 및 사회진출 프로그램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동원그룹 채용상담회	4. 15.(월) 10:00~17:00	청운관 1층 4층 상당실	
대신증권 채용상담회	4. 15.(월) 14:00~17:00	청운관 1층 12번 상당실	
시큐아이 채용상담회	4. 17.(수) 10:00~17:00	청운관 1층 2번 상당실	
상반기 공채제비 대무직장검사·NCS 모집(2차)	4. 17.(수) 18:00~21:00	경정대 111호	사전신청 필수
대한민국 공공 모집 창업기획자 (조종장학생·예비종장후보생)	4. 18.(목) 10:00~16:00	청운관 1층 1번 상당실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업방법·채용면접·당첨 현장 접수·채용설명회·특강 - 사전신청(종합정보보스터·인터넷온라인·연수신청)  
\* 당일 현장접수

\* 협약기관별로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 또는 미래인재센터에 방문 요청  
\* 대체방법으로 협약기관 홈페이지 참조

\* 기타 사항은 미래인재센터 홈페이지(www.knu.ac.kr) 및 페이스북, 단과대학 홈페이지 참조

■ 사회진출 지원 맞춤형 컨설팅 (1차)  
· 대상: 본교 학생·교수·교원·교직원  
· 상당 내용: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 및 청탁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미래인재센터 컨설팅 (1차)  
· 주의사항  
- 상당 달력 희소 불가(상당 달력 1월 전까지 가능, 취소 시 전화 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10월~12월 출학하여 지원(필수)  
-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취업담당을 밟고나는 본교의 담당 고수 참고비한  
\* 2019-학기부정 학생 이력서의 희소성으로 인해 청운관 상당시간을 결설탄트별로 주1회 마련  
\* 위치: 청운관 1층 상당실 컨설팅센터 사정에 따라 상당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종합정보시스템  
접근방법에서 일정 및 장소 확인 가능

■ 미래인재센터 CNS  
· 취업 및 사회진출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팔로우하세요!

KH 일리미니 앱 설치 → PUSH 청입정보 수신 등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nujob/>) 페이스북 검색창에 "knu\_job" 검색 → "팔로우하기"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knu\_job" 검색 → "팔로우하기"

카카오톡 검색창에 "경희대학교 미래인재센터" 검색 → "친구추가"

미래혁신원 미래인재센터 (서울C)

### 모의고사 실시 상세

회차 별 일시	응시 시간	선택 가능 시험지 [택 1]	장소
4월 16일(화)	[1차]	삼성그룹 (약 120분) LG그룹 (약 140분) CI 그룹 (약 50분) 공기업/공공기관[NCS] (약 120분)	경정대학 (오버스) 151호
4월 17(수)	[2차] 18:00~ 20:00 (선택 시험 별 종료 시간 상이)	CI 그룹 (약 50분) 공기업/공공기관[NCS] (약 120분)	경정대 111호

### (참고)-주요 대기업 직무작성검사 일정

LG/KT(4.13), 삼성(4.14), CJ(4.20), 포스코(4.21), 롯데(4.27), 금호/GCL텍스(4.28)

① 신청대상: 본교 [국제C, 출입증 포함] 취업준비생 누구나 (회차 별 선착순 120명)

② 신청방법: 에듀스 신청페이지에서 직접 접속 (QR코드로 접속)

③ 학생부당금 : 6,000원 (응시료로 13,000원 - 학교지원금 7,000원)

④ 신청 마감 기한 : 각 회사 실시 당일 13시 까지 (조기 마감 주의)

⑤ 비고 (CJ의 경우 1,2차 충복 신청 불가)

1) 시험 종료 후 48시간 내 성적 조회 및 출력, 문제 및 정답해설 확인 가능 (<http://www.educe.co.kr>)

2) 1차 2차를 충복하여 신청 가능 (단, CI 또는 NCS 단일 신청 학생의 경우 가급적 2회차를 신청 바람)

⑥ 문의 : 에듀스 고객센터 게시판 (<http://www.educe.co.kr>)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



• 접수처 : [www.whyapply.com](http://www.whyapply.com)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주소  
(<http://edu.knu.ac.kr>)

• 일정 : 2019. 04. 15(월) 10:00~ 22(월) 17:00

• 신청 대상 : 2019. 05. 23(목) 15:00~

• 신청방법 : 2019. 05. 25(금) 10:30~12:00

• 신청 대상 : 2019. 05. 25(금) 14:00~

• 신청 대상 : 2019. 05. 26(토) 10:00~12:00

• 신청 대상 : 2019. 05. 26(토) 14:00~16:00

• 신청 대상 : 2019. 05. 27(일) 10:00~12:00

• 신청 대상 : 2019. 05. 27(일) 14:00~16:00

• 신청 대상 : 2019. 05. 28(월) 10:00~12:00

• 신청 대상 : 2019. 05. 28(월) 14:00~16:00

• 신청 대상 : 2019. 05. 29(화) 10:00~12:00

• 신청 대상 : 2019. 05. 29(화) 14:00~16:00

• 신청 대상 : 2019. 05. 30(수) 10:00~12:00

• 신청 대상 : 2019. 05. 30(수) 14:00~16:00



## 특집

# 아름다운 캠퍼스에 걸맞은 건전한 본관문화제

김지원 기자 kjk990327@knu.ac.kr  
배지현 기자 flejtjsdp@knu.ac.kr

#. '경희랜드'라는 별명이 불을 만큼 아름답기로 유명한 우리대학은 봄에 그 진가를 발휘한다. 그래서인지 봄내음이 나기 시작하는 4월이면 서울캠퍼스(서울캠) 학생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본관으로 향한다. 본관에 듯자리를 깔고 앉아 음식과 술을 나눠먹는 일명 '본관놀이'를 즐기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학 본부는 소음을 이유로 본관놀이를 금지했다.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안타까움을 표했다. 올해 서울캠 총학생회(총학)는 본관놀이의 대안으로 벚꽃 문화제 '경희BLOSSOM'을 제시했다. 자발적인 놀이문화에 그쳤던 본관놀이가 공식적인 축제로 서는 순간이었다. 일시적으로 허용된 본관놀이인 만큼 경희BLOSSOM의 어깨가 무겁다. 건전한 본관놀이 만들기라는 숙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본관놀이 환골탈태의 순간, 벚꽃문화제 경희BLOSSOM의 현장을 사진과 함께 담았다.



행사에 참여한 정연수(컨벤션경영학 2014) 씨는 "이전에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본관놀이를 했는데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좋았다"고 말했다.

## 1. '브양관'

건전한 본관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 '경희블라썸 브양관'이 상주했다. 브양관은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환경미화, 질서 통제의 역할을 했다. 브양관은 절주동아리 '경희주도', '쿨 드링커', 총학 집행부, 경희봉사단으로 구성됐다. 총학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보안관과 지킴이는 딱딱하고 학부생들을 통제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보안관을 빼르게 5번 반복하면 나오는 브양관이라는 정감 있는 말을 통해 학부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했다"고 밝혔다.

## 2. 푸드트럭 존

벚꽃문화제 기간 동안 청운관 녹원 앞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푸드트럭 존이 설치됐다. 푸드트럭을 통해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캠퍼스 내 쓰레기 발생을 저감하고자 했다. 남연희(정치외교학 2017) 씨는 "이전에는 본관놀이를 위해 멀리서 음식을 힘들게 사오거나 배달음식 밖에 못 먹었다"라며 "푸드트럭이 생기면서 다양한 음식과 함께 편하게 꽃놀이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 3. 본관 콘서트

본관 분수대 무대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학내 공연 동아리와 신인가수의 버스킹 무대가 이어졌다. 학내 어쿠스틱 밴드 동아리 '칸타빌레'와 밸러드동아리 '밸러드림', 호텔관광대학 밴드동아리 '매그놀리아'가 공연을 펼쳤다. 4월 11일에는 신인가수 '올코튼'과 중앙 밴드동아리 '네이키드'가 무대에 올랐다. 총학은 학생이 직접 준비한 버스킹 무대를 통해 학생들이 즐기는 본관놀이문화를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4. 본관 영화제

지난 11일 저녁에는 본관이 영화관으로 탈바꿈했다. 학생들은 본관 계단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노을을 맞이하며 영화 '라라랜드'를 관람했다. 본관 영화제를 보려 온 윤주원(간호학 2019) 씨는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했던 본관이라는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이 신기하다"며 "건전하고 재밌는 본관놀이 문화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금지됐던 본관놀이, 축제로 돌아왔다 "새내기야 본관에서 만나자"

김지원 기자 kjk990327@knu.ac.kr

자발적 놀이문화였던 본관놀이가 공식 축제로 돌아왔다. 지난 8일부터 4일간 진행된 벚꽃문화제 '경희BLOSSOM'은 금지된 본관놀이를 대신해 총학과 학생지원센터가 합의를 통해 마련한 축제였다. '건전한 본관놀이 문화 만들기'를 목표로 진행된 경희BLOSSOM의 이모저모를 모아봤다.

무심히 기울인 솔잔에도 낭만이깃드는 계절이다. 벚꽃 흘날리는 본관에선 더욱 그렇다. 서울캠 학생들은 알려준 이 없어도 꽃망울이 입을 열면 하나둘 본관으로 모인다. 한 손에는 전공책을, 다른 한 손에는 듯자리를 든 학생들의 설렘가득한 표정에 본관놀이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학본부는 본관놀이를 금지했다. 본관놀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본관을 비롯한 중앙도서관, 생활과학대학 등 인근 시설에서의 학업과 행정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학생들은 본관놀이 금지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총학은 벚꽃문화제 경희BLOSSOM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발적인 문화였으나 질서 없이 진행됐던 기존의 본관놀이를 체계적인 하나의 축제로서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먼저 총학은 기존 본관놀이의 문제를 '소음', '음주', '환경'문제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경희BLOSSOM이 기존 본관놀이와 차별되는 부분은 단연 질서다. 총학은 이를 위해 전체적인 본관놀이 질서 지킴이 '경희블라썸 브양관(브양관)'을 본관에 상주시켰다. 벚꽃문화제 기간 동안 브양관은 올바른 음주문화 실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배달음식도 본관놀이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본관놀이 시즌이면 배달 느는 배달 오토바이 출입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대두됐고, 배달음식 쓰레기 처리도 문제였다. 총학은 배달 오토바이 출입 가능 구역을 제한하고 푸드트럭 존

을 설치했다. 쓰레기통을 추가 배치하고 환경미화 인력을 투입해 환경문제에도 대응했다.

경희BLOSSOM이 비단 질서있는 본관놀이에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벚꽃문화제라는 이름에 걸맞은 콘텐츠가 뒤따랐다. 본관에서 영화 '라라랜드'를 상영하는 '본관영화제'부터 '본관콘서트', '산책로 작품전시' 등 축제의 면모도 갖췄다. 경희BLOSSOM이 이야기하는 건전한 본관놀이에는 음주 이외의 즐길 거리, 즉 문화생활도 포함되는 것이다.

총학의 노력이 통했는지 경희BLOSSOM에 구성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연수(컨벤션경영학 2014) 씨는 "이전에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본관놀이를 했는데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좋았다"며 "앞으로 발전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참여 소감을 밝혔다.

교직원 A씨 역시 "행사가 짐시간에 진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고 이렇게 건전한 문화가 있다면 좋은 것 같다"며 "제대로 된 축제 분위기가 난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갑작스러운 비 소식에 '본관영화제' 상영 일정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혼란도 있었다. 본관콘서트도 마찬가지였다. 본관콘서트에 참여한 이정훈(경영학 2019) 씨는 "비가 와서 공연이 어려운 상황에서 총학과 연락이 매끄럽지 못해 연기나 취소 같은 결정이 늦었던 것이 아쉽다"며 "그래도 많은 관객과 공연을 마무리해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총학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학생들이 봄에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에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벚꽃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의 문화는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번 경희BLOSSOM을 계기로 학생 스스로 건전한 축제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